

# 의례복식의 상징작용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그 적용\*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Research Methodology on the Symbolism of Ritual Dress and Its Applications

Eun Joo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94. 9. 12 접수)

### Abstract

The forming process in the symbolism of dress can be approached by the semiotics of C. S. Peirce. According to Peirce's theory, semiosis consists of sign, its object, and interpretant. Especially Peirce classifies the sign into three categories; *icon*, *index*, and *symbol*. *The icon* is based on the similarity in properties and forms, and *the index* is based on the actual connection with their objects, while *the symbol* is based on the association of interpretant. These classification method can be considered as a theoretical base for symbol of ritual dress.

On the other hand, it was discussed the analysing method of the concept of dress sème (symbolic element) by introducing the *isolate* concept of structuralism for explaining how the symbol reveals itself. So it is discussed the several concepts of structuralism; the concept of relation syntagmatique and relation paradigmaticue, the relation binaire, and the units.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consider *dimension of context* in addition to *dimension of dress itself* for the dimension of total symbolic elements of ritual dress.

It is proposed that the above developed dress symbol elements should be used for understanding the society or culture that includes the elements by introducing the symbolic anthropology such as V. Turner's three dimensions of symbol.

### I. 서 론

인간은 '상징적 동물(symbolic animal)'이라고 정

의되기도 한다. 데카르트 이후의 과학주의적 흐름 속에서 동화시되어 왔던 상징은 20세기 초,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현대문화의 새로운 요소로 도입되면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새로운 노력 속에서 철학자 카시르(E. Cassirer)는 '상징'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였는 바, 인간이 지닌 象徴體系는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 본 연구는 1993년도 안동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상징을 창조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들이 이룩한 문화는 상징체계의 집합인 동시에 그에 따른 의미체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무언의 언어 또는 시각적 언어로 정의되는 복식도 다른 문화요소와 마찬가지로 상징체계의 일부를 이룸으로써 사회적인 의미체계를 지니며 또한 그에 따른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복식의 의미전달기능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의미전달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복식의 상징작용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상징작용의 범주에는 화이트헤드(A. N. Whitehead)<sup>2)</sup>가 정의내렸던 것 처럼 象徴과 意味의 두 차원이 포함되며, 이들 두 차원에 의한 균형잡힌 접근을 통해서 진정한 복식 상징작용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복식의 상징과 의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상징작용의 총체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특히 한국전통의례에서의 복식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고자 함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우선 피어스(C. S. Peirce)의 기호학 이론<sup>3)</sup>을 바탕으로 상징의 유형을 살펴보고 儀禮服飾 象徴素(the symbolic elements of ritual dress)<sup>4)</sup>를 추출하기 위해 관여되는 구조주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미 차원에 대해서는 추출된 복식 상징소를 통해 개별적인 의미해석은 물론 보다 근원적인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복식의 상징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傳統喪禮의 初終 단계를 적용의 예로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론을 다양한 시대와 사회에 적용할 때 복식의 상징작용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낳은 문화적 기반과 그 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상징작용의 분석방법론

상징작용에는 상징의 발생에서 의미해석에 도달하기

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징작용에 대한 접근방법은 두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상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이다. 기호학에서는 전자를 ‘전달의 기호학’이라고 하며 후자를 ‘의미작용의 기호학’이라고 한다<sup>5)</sup>. 그러나 연구대상에 대한 상징작용의 총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전자와 후자의 접근방법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만이 상징의 생성·변천 과정은 물론 그 상징을 만든 사회와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례복식의 상징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다루려는 의도하에서 우선 상징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상징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상징소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논함으로써 해당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복식 상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상징인류학의 다차원적 해석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논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징(symbol)’과 ‘기호(sign)’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시르나 화이트헤드 처럼 상징과 기호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다원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상상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경우, 이를 ‘상징’이라고 하며, 상징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하에서 하나만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사고의 개입이 필요없는 단순한 대상을 ‘기호’라고 한다.

한편 우리는 흔히 어떤 대상이 의미를 표출할 때 그 대상을 막연히 ‘상징’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덤바(H. F. Dumber)<sup>6)</sup>나 사피어(Sapir)<sup>7)</sup>와 같은 학자들도 기호라는 용어보다는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좁은 의미의 象徴’과 ‘좁은 의미의 記號’를 ‘象徴’이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한다. 하지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처럼 ‘기호적 활동’과 ‘상징적 활동’을 같은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구분 없이 혼용하는 경우<sup>8)</sup>도 있다.

그러나 ‘기호로 간주되는 모든 것에 관한 학문’을 기호학이라고 정의하는 기호학자들의 견해는 다소 다르다. 대표적인 학자 에코(U. Eco)와 같은 이는 어떤 것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기호<sup>9)</sup>로 규

정하면서 기호와 상징을 모두 기호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즉 기호 속에 상징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 미국의 논리학자이자 기호학의 창시자로 불려지는 퍼어스 역시 기호(the sign)를 類像(the icon), 指標(the index), 象徴(the symbol)으로 분류함으로써 예코와 마찬가지로 상징을 기호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상징작용의 연구에 기호학 이론의 도입은 무리가 없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의 교류를 위해서도 기호학의 도입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학자들 간의 상징과 기호에 대한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이론을 택하든 간에 논의의 입장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시작한다면 용어상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작용을 일으키는 매체를 퍼어스의 기호 즉 유상, 지표, 상징으로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퍼어스의 기호학 이론<sup>10)</sup>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기호체계는 청각과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청각에 입각한 기호는 언어기호로서 언어나 음악 같은 형식을 만들어 내며, 시각에 입각한 기호는 비언어기호로서 회화나 복식을 포함한 조형예술과 같은 형식을 만들어 낸다. 퍼어스는 최초로 비언어학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 정의를 내린 학자로서 이미지 영역의 기호를 유상적인 범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비언어적 기호체계 현상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sup>11)</sup>고 하겠다.

퍼어스는 기호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상호관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호의 양식을 분류하였다. 기호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삼항 관계(triadic relations)의 요인을 기호(sign), 대상(object), 그리고 해석내용(interpretant)으로 규정하였고 그의 독특한 3분법적 범주원리에 따라 기호를 여러 차원에서 분류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분류로 類像, 指標, 象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類像(the icon) ◦

유상의 경우, 기호와 대상 간의 관계는 어떤 성질의 공유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공유성은 유사성(an analogy)과도 통하는데 어떤 기호의 성질이 그 대상

의 어떤 성질과 유사하여 그 대상의 기호가 되는 경우, 그 기호를 유상 또는 유상기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모든 방식으로 닮을 필요는 없으며 단지 하나의 유사성이라도 그 유사성이 표의기능을 하는데 충분한 근거만 될 수 있다면 유상이라는 기호로 성립될 수 있다. 예컨데 도형이나 그림은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과 시각적으로 닮았다는 유상적인 관계에 의해 유상이 된다. 또 청각적으로 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된다. 따라서 유상적 기호는 그것과 닮은 다른 모든 것의 대용물(substitute)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2) 指標(the index)

지표란 기호와 그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그 사실에 의하여 그 대상의 기호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성보다는 그 대상과의 실제적인 접촉 양식(an actual connection)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즉 그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인과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데, 예컨데 코듀로이의 게이터즈(gaiters)와 자켓(jacket)을 입은 다리 흰 사람을 보면 騎手나 또는 그런 일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sup>13)</sup>. 또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누군가가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고, 연기는 불의 지표이다. 그 외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것과 경험적으로 연결만 된다면 역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대단한 천둥소리는 사고의 발생을 암시하는 지표이기도 한다<sup>14)</sup>. 또한 교통신호나 도로표지, 거리의 간판, 훈장, 유니폼 등도 지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서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sup>15)</sup>.

#### 3) 象徴(the symbol)

퍼어스는 언어기호를 중요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학자들의 상징 개념과는 구분된다. 즉 유럽학자들은 대상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유추성을 진정한 상징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언어기호는 '좁은 의미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유상이 대상과의 '유사성'으로, 지표가 대상과의 '인접성' 내지는 '인과성'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징은 대상과의 '유추성'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상징은 습관(habit)이나 규약성(conventionality)에 의거하게 된다<sup>17)</sup>.

예컨데 백색은 순순의 상징이요, 저울은 정의의 상

징이라는 등의 사용법은 아주 보편적인 통념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통념이라는 것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서양에서는 韋齋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흑색을 사용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백색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습관이나 규약성 등에 의한 주관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해석자는 상징 작용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은 기호과정의 3항관계인 기호와 대상, 해석자(해석내용)의 완전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이나 지표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호라고 볼 수 있다<sup>19)</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퍼어스는 3분법에 의해 기호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3분법적 기호가 서로 배타적인 종류의 기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예는 현대복식의 현상분석에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한 모르가도(M.A. Morgado)의 연구<sup>20)</sup>에서 확인된다. 그는 패션 상품에 사용된 동물형 트레이드 마크, 예컨대 라코스테(Izod Lacoste)의 악어(alligator) 도형이나 랄프 로런(Ralph Laurent)의 폴로 말(polo pony) 도형 등의 상표가 피상적으로는 유상적 표상으로 보이지만, 유상적 차원의 해석은 물론 지표적 차원의 해석, 더 나아가서는 상징적 차원으로의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복식의 상징 작용을 연구함에 있어 특히 상징의 유형분석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퍼어스의 기호학 이론에 의거하여 복식의 상징작용을 살펴본다면 하나의 복식상징(기호)이 대상과 어떠한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으며 복식상징이 하나의 유형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도 밝힐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차원에서 상징의 의미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2. 象徴素 추출 방법론

복식상징의 유형 분류와 더불어 어떤 요소가 상징소로 작용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상징소로의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의례복식의 상징소를 추출해 내는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지 구체적인 상징소의 제시는 아니다. 후술될 방법론을 연구대상에 적용시킬 때 비로소 상징소가 추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의례복식의 상징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물론 상징작용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이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단점도 있지만<sup>21)</sup> 이러한 단점은 각기 다른 시대나 민족을 대상으로 복식의 상징작용에 대한 거듭되는 연구를 통해 내용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호학과 마찬가지로 언어학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는 구조주의는 인간의 여러 문화요소와 사회적 제약상이 구조언어학의 개념과 연구방법으로 고찰될 수 있다는 명제가 제기되면서 비롯되었다. 산발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문화현상들의 구성요소가 서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언어의 음운구조와 유사한 정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sup>22)</sup>.

의류학 연구에서도 이미 구조주의적 분석이 활용된 바 있다. 이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은 표현상의 용어는 다르지만 본고의 '상징소'와 상통하는 개념들을 제시하였는데, 힐스테드(R. Hillestad)<sup>23)</sup>는 외모를 복식의 결합(sequence)과 구성(composition)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단위(units)'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Wass & Eicher는 힐스테드와는 달리 '성분(Componen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sup>24)</sup>. 국내의 연구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白英字<sup>25)</sup>는 '素(isolate)' 개념으로, 韓明淑<sup>26)</sup>은 '의미기능단위'로 논지를 전개시킨 바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가능성 하에서 복식의 상징소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에 관여되는 구조주의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連辭關係와 範列關係 개념

구조주의적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는 각 단위가 맺어지는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호체계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동일한 상황이나 공간 속에서 공존하는 단위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연사관계(relation syntagmatique)'라고 한다. 반면에 동일한 상황 또는 공간 속에서 동일한 위치에 대치될 수 있는 단위들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법렬관계(relation paradigmatic)'라고 한다. 즉 연사관계란 연쇄체적 관계로서 상호 근접하여 일정한 순서나 법칙으로 연결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예컨대 의복체계에 있어서는 상의와 하의는 근접성을 이루는 연사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한 인체에 입혀지는 의복은 모자, 상의, 하의, 신발 등의 일정한 아이

<표 1> 롤랑 바르뜨가 제시한 '복식의 기호체계'

연사관계	범렬관계
모자+상의+하의+신발	상의 : 블라우스/.../스웨터/ ... 하의 : 반바지/.../진바지/...

템들의 조합에 의해 완성된다. 이 때 각 상황에 따라 구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체를 덮어 착장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아이템들은 연사관계에 있는 것이다. 반면에 범렬관계란 상호간의 유사상에 의하여 교환이 될 수 있는 관계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서로 바뀔지라도 그 체계에는 변동이 없다<sup>27)</sup>. 즉 자켓 대신에 스웨터를 상의로 입을 수 있다. 이 때 스웨터나 자켓은 서로 범렬관계에 있는 것이다. 롤랑 바르뜨가 복식체계에 적용한 연사와 범렬관계의 개념을 간단하게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sup>28)</sup>.

2) 변별적 차이 개념

구조주의적 사유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변별적 차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언어학적 분석에서 본질적 과정의 하나인 '구분적 특성'과 관련된다. 후술한 素개념 역시 이 개념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대립이나 그 대립이 낳는 변별적 차이 없이는 각각의 의미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여적 대립'이나 '변별적 차이'가 낳는 '이항적 관계 (la relation binaire)'<sup>29)</sup>는 이미 인류학의 친족체계에나 신화체계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하나의 단위적 개체는 그 자체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되는 다른 동일 수준의 단위 개체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지니며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0)</sup>.

3) 분석단위(素)개념

본 논의에서 다루는 상징소 단위 추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구조주의는 모든 구조분석이 기본단위의 본질 내지는 절단에서부터 비롯되며 분석 대상마다 독특한 수준의 단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앞서 지적한 연사와 범렬, 두가지의 분석절차를 일정한 자료체에 적용시키게 되면 여러가지 다른 분석 수준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기술이 가능하다.

언어학자 방브니스트(E. Benveniste)는 微要素 수준, 音素 수준, 形態素 수준, 文章 수준으로 언어단위

를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낮은 수준의 단위는 높은 수준의 구성요소가 된다. 한명숙의 연구(1987)에서 복식구조 분석의 수준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러한 언어단위 수준이었다. 한편 신화학자에게 있어서는 신화 구성요소가 언어학자의 음소 차원이 아닌 '문장 (phrase)'이라는 차원에 놓이게 된다. 절단된 짧은 문장단위가 분석의 기초단위가 되며 그 기초단위들이 다른 단위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토대로 하여 神話素 (mythème)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레마스는 회화, 그래픽, 사진 등을 평면적 기호론(sémiotique planaire)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형태와 색채의 본질을 의미기능의 단위로 제시하였고 그와는 달리 린드켄스는 사진제작 영역에서 활용되는 카메라, 原畫(음화 négative), 인화지, 정착액을 사진분석의 최소단위 (unités minimaux)로 설정한 바 있다<sup>31)</sup>.

이처럼 素라는 개념은 분석 대상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언어학이나, 신화학, 사진학, 예술학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개념-연사관계 및 범렬관계 개념, 변별적 차이 개념, 분석단위(素) 개념-이 복식의 상징소 추출 방법에 어떻게 관여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입는 의복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상의와 하의를 입는 것을 기본적인 착장범으로 가정할 때, 상의와 하의를 입음으로써 복식의 착용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의 착장을 완성 조합관계를 '연사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기본적 구조에 모자와 신발, 장신구들을 포함하는 더 복잡한 연사관계의 성립도 가능하다. 한편 우리는 상의를 입을 때, 여러 개의 상의 종류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 선택된 상의 또는 하의는 대치될 수 있는 상의류나 하의류의 '범렬관계'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착장의 완성은 이와 같은 연사관계와 범렬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관계에서 복식상징의 의미를 만드는 한 단위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미의 도출은 아이템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복이란 여러 디테일과 색채, 소재, 배치 등과 같은 복식디자인의 여러 요소와 원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학의 미요소나 음소, 형태소와 같은 복식의 더 낮은 수준에 속한 상징소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표출하게 된다.

한편 이 때 사용되는 주요 상징소는 복식에 따라 또는 착용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어떤 의복에서는 색상이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작은 단위의 상징소 외에 언어단위의 '문장'에 해당하는 완결된 착용상태도 하나의 중요한 상징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sup>32)</sup>. 즉 아이템 하나 하나는 색채와 재질, 디테일 등의 요소가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러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진 완성된 착용상태는 그 자체로서 단독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소의 한 단위로도 작용한다. 예컨대 傳統喪禮服은 아이템 자체, 소재, 색채 등 여러 상징소가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喪中이라는 상황적 의미는 喪主의 전체적 외모의 분위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상징소는 처음부터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녔다고 보다는 다른 것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즉 다른 상징소와의 이항적 대립 혹은 변별적인 차이에 의하여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계급적 의미가 服色에 의해 드러난다고 할 때 상류층의 색상과 하류층의 색상의 변별적인 대립에 의해서 의미를 비로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색상 이외에 직물이나 입는 의복의 수량, 형태 등도 변별적 대립에 의해 착용자의 제급을 표출하는 상징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미와 상징소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각 의미에 관여되는 상징소는 내용이나 정도 또는 수준 등이 달라진다. 또한 의미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문화나 사회 또는 시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각 상징소의 비중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징소를 추출하여 분석해 보면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상징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그러한 양상을 포괄시킨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그 문화를 더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구체적으로 복식의 의미를 형성하는 요소 또는 단위를 제시한 예가 있다. Hillestad는 외모의 단위 체계를 '신체와 관련된 요소'와 '복식과 관련된 요소'로 二分하고 전자의 요소로 체형, 피부, 움직임, 후자

<표 2> 복식의 의미기능단위

意味機能單位	—	文章(最終 服飾着用形態)
	—	낱말(服飾品目 單位들)
	—	形態素(服飾 낱말을 이루기 위한 構成形態)
	—	超分節形態素(材料, 材質, 色 및 디자인의 요소)

<표 3> 복식의 상징소 차원에 대한 비교

신체 차원	복식 차원	상황적 차원
R. Hillestad의 논의 차원		
	韓明淑의 논의 차원	
	본 연구자의 논의 차원	

의 것으로는 색채, 질감, 무늬 디자인 형태와 같은 디자인 요소와 의복을 입는 방식이나 조화시키는 방식 즉 원리를 제시하였다<sup>33)</sup>. 또한 韓明淑<sup>34)</sup>은 복식의 상징작용과 관련된 의미기능단위의 기본구조의 골격을 언어분석 단위와 관련지어 '복식 차원'에 한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표 2>.

Hillestad의 분석 차원이 '신체 차원'과 '복식 차원'으로 전개되어 있는 반면에 한명숙의 분석에서는 주로 '복식 차원'에 한정하여 단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연구자의 관심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의례복식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의례복식 상징소의 차원으로 '복식 차원' 이외에 '상황적 차원'<sup>35)</sup>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표 3>. 의례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차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례복식의 상징소는 복식차원 뿐만 아니라 상황적 차원에서도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 3. 의미분석 방법론

일상 생활 속에서 타인들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요소만이 아니라 수 많은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체계적인 해독은 여러 학문 분야의 관심대상으로서, 특히 복식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

지에 대한 해석은 의류학 분야의 주요 관심대상인 동시에 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의 관심대상이기도 하다.

의례에 사용된 복식의 상징작용에 관한 연구는 상징인류학 연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다. 상징인류학에서도 각각의 문화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기호나 상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의 상징은 물론 비교문화적 입장에서 서로 다른 문화간의 차이나 특성 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성립가능한 다양한 상징의 의미파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식의 상징작용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들과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상징작용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상징인류학 이론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인류학자 터너(V. Turner)<sup>36)</sup>는 사피어의 상징 분류<sup>37)</sup>에 의거하여 의례적 상징(ritual symbol)을 ‘합축적 상징’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의례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를 정하여 의례가 필요로 하는 잡다한 사물을 진열하고 일정한 격식을 갖춘 의례적 행동을 행하는 것이다. 특정한 장소가 이미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그 장소에 놓인 사물도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sup>38)</sup>. 의례에 참가한 사람들의 복식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 때 사용되는 상징물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상징물들이 지닌 의미구조도 복잡하다. 즉 하나의 사물이 여러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사물이 하나의 의미를 상징할 수도 있다.

의례를 일련의 상징 전개로 파악하여 분석할 때, 의례장에 등장하는 상징물들, 또는 의례용어, 음악 그리고 의례절차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의 배후에 있는 심층적 의미를 밝히는 일이다. 터너는 이를 위해 상징의 차원(dimensions of symbol)<sup>39)</sup>을 3단계로 설명한 바 있다. 첫째 차원은 ‘註釋的(exegetic) 次元’이다. 이는 의례를 연구하는 사람이 다양한 계층의 의례 참가자나 행위자들로부터 의례의 절차나 상징물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일차적인 해석단계이다. 둘째 차원은 ‘操作的(operational) 次元’이라고 한다. 이 차원은 관찰자가 의례의 진행을 직접 관찰하고 절차 간의 관계와 과정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마지막의 세째

차원은 ‘位置的(positional) 次元’이라고 하는데 전단계에서 드러난 의미를 종합하고 추상화하여 의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숨겨진 의미를 찾는 단계이다<sup>40)</sup>.

터너의 이론에 의하면 복식이란 일차적으로 주석적 차원에 관여되는 상징물로 보이지만 결국 ‘조작적 차원’, 더 나아가서는 ‘위치적 차원’으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의례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석적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위치적 차원’으로 의미 분석을 시도하는 상징인류학의 방법론은 복식을 통하여 인간과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복식연구의 방법론으로 수용될 수 있다.

### III. 방법론 적용의 예

모든 의례복이 상징작용을 하고 있듯이 상례복 역시 그러하다. 앞서 논의했던 방법론을 상례 복식<sup>41)</sup>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상례복의 상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상징소는 무엇인지, 또 추출된 상징소들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전통상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례 연구를 위해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전통문화 속에서 喪禮는 祭禮와 더불어, 효행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여겨졌던 禮의 대표적인 영역이었고, 특히 그 服制는 사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상례는 내용상으로는 죽은 사람의 육신과 더불어 육신을 떠난 영혼을 취급하는 의례인 동시에 亡者와 生者와의 관계를 동시에 다루는 독특한 성격의 의례이다. 망자의 육신 처리과정, 망자의 영혼을 영적 세계로 보내는 과정, 함께 생활하던 망자와 喪主의 시·공간적 분리, 또 상주의 특별한 사회적 지위 마련에서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환원되는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만이 상주라는 지위에서 분리될 수 있다<sup>42)</sup>. 이러한 상례의 절차에 관여되는 의식행위나 의례물들은 그 사회·문화가 지닌 생사관 내지는 내세관 등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그 의식에서 사용되는 복식은 의례물의 일부로서 다른 상징물과 더불어 그러한 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의례의 전체적 과정을 다루어야만이 진정한 상징작용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상례 단계를 모두 다룰 수 없기에 상례의 초기 단계인 초종 단계<sup>43)</sup>만을 다루고 전체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종 단계의 전 과정 속에서 복식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단계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분야까지도 살펴 봄으로써 의례복식의 상징작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상징작용 과정에서는 상징소의 추출과 일차적인 의미해석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편의상 상징소와 의미해석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때의 의례복식 상징소 차원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복식 차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식을 다루는 상황적 차원까지 포함된다.

### 1. 傳統喪禮의 初終 단계에서 추출되는 儀禮服飾象徵素

초종은 正寢으로 옮겨진 병자가 숨을 거두면 죽음을 확인하고 喪事를 준비하는 상례의 시작 단계이다. 초종 단계에 따른 내용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sup>44)</sup>.

#### 1) 遷居正寢

-- 병자의 머리를 동쪽으로(방위) 하여 북쪽 벽 아래(방위)에 눕혀 둔다.

... 남자는 남자에 의지하고 죽고 여자는 여자에 의지하여 죽는다(성별).

2) 既絶乃哭 : 숨이 끊어지면 이불로 시신을 덮고(의복·행위) 곡을 한다.

#### 3) 復

一 侍者는 死者의 上服(의복)을 가지고 前槨으로 올라 지붕 가운데로 간다.

有官者는 公服을, 無官者는 襴衫이나 帛衫, 深衣를, 婦人은 大袖, 褙子를 사용한다. 襴襴皆旨旨

一 이 때 左執領 右執腰(방위)하여 北面(방위)하고는 옷을 흔들면서 3회(數理) 생시의 號를 부른다.

一 복을 마치면 옷을 감아들고(행위) 뒤쪽 西槨(방위)으로 내려와 그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행위).

4) 執事者 設幃及牀 遷屍 : 집사자는 휘장과 상을 마련하고 東首에서 南首(방위)로 遷屍한다.

5) 立喪主·主婦·護喪·司書·司貨 : 상례 참여자들

의 역할을 결정하고 일을 분담한다.

#### 6) 乃易服不食

一 妻·子婦·妾은 去冠하고 上服(「備要」婦人白長衣)(의복·색채)에 被髮(머리형)하고

一 男子는 深衣를 입되 擗上衽(「喪大記」〈註〉擗前衽於帶)하고 徒跣한다(의복 : 착장형태변형·제거)

一 나머지 有服者는 華飾을 제거한다(의복 : 제거).

7) 治棺 : 재료를 선택하여 장인에게 관을 만들도록 한다.

一 北斗狀(문양)의 七星板을 준비한다.

8) 訃告于親戚僚友 : 친척들과 친구에게 사망을 알린다.

이상의 과정에서 드러난 기호양식과 상징소는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기호양식에서는 퍼어스 기호론의 세 범주에서 지표와 상징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初終 단계의 상징은 주로 인과성이나 유추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징소는 '儀禮服飾象徵素'와 그외의 '非儀禮服飾象徵素'로 구분이 되는데 복식 이외의 상징소가 복식 상징소의 특징 파악이나 복식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할 기을일 필요가 있다. 특히 方位나 數理와 같은 상징소는 상례에서 중요한 상징소가 된다.

초종 단계에서 사용된 복식은 용도상으로 크게 死者用과 生者用으로 구분되지만 사자용 복식은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 생자용 복식은 제6단계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된다. 따라서 초종의 단계에서는 역시 사자의 복식처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생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례의 초기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제3단계인 '復' 단계에 가장 많은 상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가 초종에서는 상징작용의 핵심적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자가 입었던 옷이 사용되고 있음으로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생시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의례 중에서 사용된 상징소의 정확한 횟수 파악은 어렵지만 대체적인 경향의 파악은 가능하다. 초종 단계에서 드러나는 상징소는 머리형(1건)을 비롯하여 의복(6건)과 색채(1건)의 '복식 차원'의 상징소와 행위(3건), 방위(1건) 등의 '상황적 차원'의 상징소로

<표 4> 傳統喪禮 初終 단계에서 추출된 상징소와 그 의미

初終 단계	의례복식 상징소		의미	기호양식
	표현양상	상징소		
1) 遷居正寢	東首 北嚮下	방위	東은 生氣의 장소, 北은 생기가 시작하는 곳이므로 환자의 회복 갈망을 암시	지표·상징
	男女	성별	남녀의 철저한 구분인 동시에 사자의 성별을 구분하는 지표적 역할	지표
2) 氣絶乃哭	覆衾	의복·행위	衾으로 덮는 행위를 통해 생사 구분함과 동시에 용물을 은폐함으로써 산자들을 배려	지표
3) 復	上服	의복	死者의 성별이나 사회적 아이덴티티의 告知	지표
	左執領	방위	左는 陽과 生을 의미, 死者의 回生을 희망함과 동시에, 여전히 사망 否認	상징
	北面	방위	鬼神이 幽暗之方을 좋아하기에 망자의 혼이 있다고 보는 북쪽을 향함	상징
	三回	수리	天·地·天地之間 즉 혼이 떠돌 곳으로 여겨지는 세 곳(모든 곳)을 의미	상징
	卷衣	행위(감음)	옷을 감아 쥐는 것은 옷에 혼을 담았음을 의미 즉 의복과 혼을 동일시	지표
	復衣	행위(덮음)	시신에 다시 옷을 덮는 것은 혼과 육신의 결합을 통해 회생 희망 → 완전한 사망 부인	지표
4) 執事者說 偉及狀遷屍	南首	방위	南首함으로써 여전히 진정한 사자가 아님을 의미	상징
5) 立喪主··	·	·	喪事와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 분담	
6) 乃易服··	差等易服	의복	死者와의 혈연적 疏密 관계 표시	지표·상징
	深衣· 白長衣	의복·색채	가장 검약하고 절감한 차림으로 조심하고 삼가하는 상례의 의례적 감정 표출	지표·상징
	去冠·被髮 ·挿上衽 ·徒跣	머리형·의복 (착장형태 변 형·제거)	비일상적 상황으로의 변화, 특히 사태의 심각성과 경황이 없음을 의미	지표
	華飾 제거	의복(제거)	조심하고 삼가하는 상례의 의례적 감정 표출과 동시에 喪主와의 차별화	지표
7) 治棺	北斗七星	문양	복두는 死를 관장하는 별로서 상례의 표상	상징
8) 訃告干··			대외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사망 인정	

분류됨으로써 의복 자체가 역시 중요 상징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횡수가 적다고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부분적인 디테일의 차이에서 보다는 오히려 비일상적인 착장형태나 의복의 제거 자체가 의미물 지녔으며 또 의복 자체가 상징소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死者에게서 보다는 생자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고 오히려 사자에게는 행위나 방위 등의 상황적 차원의 상징소가

더 자주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2. 상징소를 통한 의미분석

### 1) 遷居正寢

君子는 東首로 취침한다<sup>45)</sup> 고 한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는 잠을 잘 때 머리를 두는 방향조차도 정해져 있었다. 환자의 머리를 동쪽에 머리를 두게 하는 이유도 동일한 발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여겨지는데, 동쪽이 生氣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 北墉下에 눕혀 두는 것 역시 北이 生氣가 시작되는 곳<sup>46)</sup>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머리와 신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배려에는 환자의 회복을 희망하는 강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방위 감각은 복식 상징소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 2) 既絶乃哭

환자의 숨이 끊어지면 이불을 덮는다. 이 행위는 生者와 死者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육체에서 혼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도 해석되지만 시신을 덮음으로써 생자에게 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산자에 대한 배려'<sup>47)</sup>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 3) 復

招魂이라고도 하는 復은 초종에서 가장 비중있는 단계이다. 사자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저승을 향해 떠날 때, 가는 혼을 다시 육체로 불러들여 환생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상징과 그에 따른 의미를 접할 수 있다. 즉 招魂을 할 때 侍者が 死者의 上服을 잡고, 왼손으로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고 지붕에 올라 북면한 후, 세번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옷을 흔들게 된다.

이 때의 上服이란 사자가 생시에 입었던 겉옷으로 제복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sup>48)</sup>. 이 때 제복 자체는 사자의 성별과 생시의 지위 또는 계급을 알려주는 상징이 된다. 또 지붕 위에 올라 흔드는 행위는 혼을 다시 불러 들인다는 의미 외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初喪 告知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북면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북쪽으로 간다<sup>49)</sup>는 관념에 의해 북쪽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아직 멀리 가지

않은 혼은 上服에 붙어 다시 사자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유교적 영혼관에서 비롯된 것이다<sup>50)</sup>.

上服의 깃 부분은 왼손으로 잡고 허리 부분은 오른손으로 잡는 것 역시 하나의 상징이다. 左라는 방위는 陽과 生の 의미를 지닌다<sup>51)</sup>. 즉 앞 단계에서 사망을 인정하고 이불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망을 원하지 않기에 다시 회생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노력인 것이다.

3회라는 횟수에서 3은 禮가 성립되는 숫자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sup>52)</sup>. 『淮南子』에 의하면 '祭禮에는 三食으로 禮를 삼고 喪禮에는 三踊으로써 예를 삼는다'고 한다. 3은 만물을 낳는 수로서<sup>53)</sup>, 혼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인 천, 지와 그 사이<sup>54)</sup>라고 하니 결국 3은 우주 전체 또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復이 끝나면 옷을 잡아 내려와서는 시신에 덮는다. 옷을 감는 행위는 의복에 혼을 담아 그 혼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 옷으로 사신을 덮는다. 그러나 덮는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제 2단계에서 이불을 덮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2단계에서 이불을 덮는 것은 생자와 사자를 구분한다는 또는 흥물을 가린다는 의미이지만 復衣로 덮는다는 것은 혼이 담긴 옷으로 육신과 혼이 분리되지 않도록 가두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이 역시 재생의 희망이다.

### 4) 執事者 設幃及牀 遷屍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경우는 葬時에 비로소 하게 되는 방위이다<sup>55)</sup>. 北首가 아닌 南首로 시신을 옮긴다는 것은 아직도 완전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사자의 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과도기적 상황임을 의미한다. 복식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일치한다.

### 5) 立喪主

이 단계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喪事를 치루는데 관여되는 상주의 생자들의 위치 설정과 업무분담을 결정짓는 과정으로 喪事의 초기 인정단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때부터 탈상 전까지 상주가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다음 단계의 易服 행위로부터 더욱 구체화된다.

### 6) 乃易服不食

이 단계에서 비로소 生者들의 복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易服이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妻·子

婦·妾 등의 여성들이 冠을 제거하고 白長衣를 입고 被髮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 모습을 취함으로써 근신 상태 또는 원초적인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남자는 심의를 입되 역시 입은 모양새가 오른쪽 앞자락을 허리띠에 끼워 일상과는 다르게 착용한다. 여성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예를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경황이 없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머지 유복자들은 華飾<sup>56)</sup>을 제거하여 화려함만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의복제거의 상태와 착용형태의 변형으로 사자와의 혈연적 관계가 드러난다. 즉 사자와 가까울수록 더욱 거친 모습이 된다. 결국 경황없이 평소의 예를 갖추지 못한 불효자의 모습이 오히려 상례에서의 예의 표현이다. 다른 의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 7) 治 棺

재료를 선택하여 장인에게 관을 만들도록 한다. 이때 北斗狀의 七星板도 준비하게 되는데 철성판 위에 북두형을 사용하는 것은 북두가 죽음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7)</sup>.

#### 8) 訃告于親戚僚友

초종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이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친척들과 친구에게 알림으로써 죽음을 인정하면서 마무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초종의 각 단계에서 추출된 상징소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 보았다. 초종의 각 단계는 점차적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쪽으로 전이되어 가지만 각 단계에서 사용된 사자의 복식은 사망의 認定과 사망의 否認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생자의 복식 역시 成服 단계의 이전 단계로서 여전히 사자의 완전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초종 단계는 상례이면서도 喪事 자체를 부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의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襲·小斂·大斂 등의 후속 단계와 비교됨으로써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 론

본고에서 고찰한 의례복식의 상징작용 연구방법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상징작용에 대한 연구의 접근방법은 상징으로 접근

하는 방법과 의미로 접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연구방법은 두 접근방식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복식 상징(기호)의 유형과 형성과정의 고찰에는 피어스의 기호론의 접근의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피어스의 이론에 의하면 기호과정은 형성하는 요인은 기호와 그 대상, 해석자로 구성된다. 특히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가 어떤 법칙에 근거하는가에 따라 기호의 종류를 3종류로 분류했는 바, 성질이나 형태 등의 유사성에 근거한 類像, 현실성과 인과성 또는 물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指標, 해석자의 유추작용에 근거한 진정한 의미의 象徵이라는 기호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호의 분류는 복식의 상징이 대상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성립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상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가라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주의의 素 개념, 즉 연사 및 범렬관계 개념, 변별적 차이 개념, 아울러 분석단위의 소 개념을 도입하였다. 의미를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儀禮服飾 象徵素라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주로 '복식 차원'에 국한시켰던 기존 복식 상징소 차원의 연구들에서 벗어나 복식이 다루어지는 '상황적 차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례복의 상징작용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의례복식의 상징소는 연역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추후의 연구를 통한 귀납적 방법으로 밝혀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징소를 통한 의미 파악은 복식의 상징작용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상징인류학 이론 특히 터너의 '상징의 3차원' 즉 '의미의 3단계 분석법'을 도입함으로써 복식 자체의 의미는 물론 사회와 문화 차원에서의 의미 파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전통상례의 초기 단계인 初終 단계에 적용시킨 결과, 이 단계에서 사용된 상징들은 피어스의 기호양식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지표와 상징으로 드러났다. 즉 초종 단계의 상징은 주로 인과성이나 유추작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용된 의례복식 상징소는 의복(형태)과 재질, 색채와 같은 복식 차원의 상징소는 물론, 복식을 다루는 행위와 방위 등의 상황적 차원의 상징소도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生者에게는 가시적 특성을 지닌 의복 자체가 중요한

상징소로 사용된 반면 死者에게는 의복 자체보다는 오히려 의복과 관련된 행위가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방위라는 상징소가 앞으로의 의례분석에 중요한 상징소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도 파악되었다. 또 복 단제가 가장 풍부한 상징을 지님으로써 초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적 단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는 사자와 관련된 상징소는 사망의 인정과 부인을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죽음을 부인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징소를 추출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단순히 복식이 지닌 의미만의 파악이 아니라 복식을 형성시킨 문화와 사회를 이해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례복식에 활용된 상징소가 다른 문화 영역 안에서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비교연구함으로써 문화 요소간의 보편성과 특수성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복식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미주 및 참고문헌

- 1) E. Cassirer, *An Essay on Man*, New Haven: Yale Univ. Press, 23-26 (1947)
- 2) A.N. Whitehead,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G.P. Putnam's Sons, 7-8 (1959).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상징작용(symbolism)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인간 경험의 어떤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관한 의식이나 믿음, 정서 등을 이끌어낼 경우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때 전자와 관련된 구성요소를 '상징', 후자와 관련된 일련의 구성요소를 그 상징의 '의미'라고 일컬으며 상징에서 의미로서의 변이론 일으키는 유기적인 과정을 '상징작용'이라고 한다.
- 3) C. Hartshorne & P. Weiss (ed.),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II,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56-170 (1932)
- 4) 素 개념은 언어학과 인류학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이미 복식학 분야에서도 적용된바 있다. 본고에서는 의례복식의 각 수준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기본단위를 素로 규정짓고 이를 '儀禮服飾 象徵素' 또는 간략히 '상징소'라 명명하고자 하며, 일반적인 '복식 상징소'와는 구별하고자 한다.
- 5) 蘇斗永, 『상징의 과학 記號學』, 서울: 인간사랑, 69-131 (1991)
- 6) H.F. Dumber, *The Literary Symbol*,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30-31 (1955)
- 7)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XIV, New York: Macmillan, 492-493 (1980)
- 8) 움베르토 에코(서우석 외 譯), 『기호학과 언어철학』, 서울: 청하, 211 (1987)
- 9)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7 (1976)
- 10) C. Hartshorne & P. Weiss (ed.), *op. cit.*, 156-170 (1932)
- 11) 베르나르 투쟁(윤학로 역),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하, 69, 162 (1987)
- 12) C. Hartshorne & P. Weiss (ed.), *op. cit.*, 156-160 (1932)
- 13) 복식이 지표로서 작용함을 제시하는 퍼어스의 직접적인 설명이다.
- 14) C. Hartshorne & P. Weiss (ed.), *op. cit.*, 160-161 (1932)
- 15) 蘇斗永, 앞책, 54 (1991)
- 16) *ibid.*, 157-158 (1991)
- 17) C. Hartshorne & P. Weiss (ed.), *op. cit.*, 165-169 (1932)
- 18) 蘇斗永, 앞책, 155-156 (1991)
- 19) M.A. Morgado, 'Animal Trademark Emblems on Fashion Apparel: A Semiotic Interpretation (Part I. Interpretive Strategy)', *C.T.R.J.*, Vol. 11 (2), 18 (1993)
- 20) M.A. Morgado, 'Animal Trademark Emblems on Fashion Apparel: A Semiotic Interpretation (Part II. Applied Semiotics)', *C.T.R.J.*, Vol. 11 (3), 31-38 (1993)
- 21) 질베르 뒤랑(진형준 역), 『象徴의 想像力』, 서울: 文學과 知性社, 69-70 (1988)
- 22) 蘇斗永, 앞책, 155-156 (1991)
- 23) R. Hillesta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Vol. 5, 117 (1980)
- 24) B. Wass & J. Eicher, 'Analysis of Historic and Contemporary Dress: An African Exampl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8 (5), 318-326 (1980)
- 25) 白英子, 우리나라 鹵簿儀衛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1985)
- 26) 韓明淑, 韓國 服飾 現象의 構造의 分析,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7)
- 27) 金炯孝, 『構造主義의 思维體系와 思想』, 서울: 인간사랑, 67-68 (1989)
- 28) J.B. Fages, *Comprendre le structuralisme*, Paris: Editions Privat, 25 (1968) 참조
- 29) 이항적 관계란 반드시 두 항목 간의 대립을 의미하

- 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의 항목이 대립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 30) 金炯孝, 앞책, 68-69 (1989)
- 31) 蘇斗永, 앞책, 209 (1991)
- 32) H.M. Buckley, 'Toward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Dress', *C.T.R.J.*, Vol. 3(2), 2(1985). 인식론(cognitive theory)에 따르면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는 전체(entire form)를 먼저 인식한 다음에 부분(parts)을 인식하게 되며, 이 때 전체라는 것은 단순히 부분의 합체로서가 아니라 각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단위 자체로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 33) R. Hillestad, *op. cit.*, 120-124(1980)
- 34) 韓明淑, 앞글, 150 (1987)
- 35) '상황적 차원'이란 복식의 교환행위라든가 착용시기, 또는 배치행위 등과 같이 복식 자체 외에 복식과 관련된 행위들의 차원이다.
- 36) V. Turner, *The Forest of Symbols*, Ithaca: Cornell Univ. Press, 29 (1967)
- 37) Sapir는 상징을 '지시적 상징'과 '함축적 상징'으로 구분한 바 있다.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XIV, New York: Macmillan, 492-493 (1980)
- 38) 李光奎, 『韓國人의 一生』, 서울:螢雪山版社, 255 (1985)
- 39) 의미상으로는 상징을 통한 해석의 차원을 말한다.
- 40) V. Turner, 'Symbols in African Ritual', in Dolgin, J. L. et al(ed), *Symbolic Anthrop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0 (1977)
- 41) 상례 과정에서 사용되는 복식은 크게 망자가 입고 덮는 衣服類와 자손들이 입는 喪服類로 대별된다. 그 외에 상례 과정에서 사용되는 衾이나 魂帛 등의 雜服類들도 포함된다.
- 42)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46 (1960)
- 43) 초중 단계의 과정과 내용은 『四禮便覽』에 제시된 단계를 골자로 하면서 그 외 문헌을 참고하고자 한다.
- 『四禮便覽』卷之三 喪禮一, 서울:保景文化社, 影印本, 30-47 (1987)
- 44) 각 내용에서 추출되는 상징소는 편의상 해당 내용에 뒤에 괄호 안에 명시하고 의례복식 상징소는 밑줄을 그어 非儀禮服飾 象徵素와 구분하였다.
- 45) 『禮記』玉藻篇, 君子之居恒堂戶 寢恒東首
- 46) 『常變通攷』卷之七, 四, 「士喪記」寢東首於北塘下<疏>東首向生氣之所…北壙下…陽生於北 生氣之始也
- 47) 임재해, 『전통 상례』, 서울:대원사, 115 (1992). 저자는 상례 자체를 죽은자를 위한 의례라기 보다는 산자를 위한 의례로 파악하였다.
- 48) 복에는 死者의 祭服을 사용하는데 이는 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常變通攷』卷之七九, 「喪大記」復大夫以玄纁 世婦以禮衣 士以爵弁士妻以視衣<註>復用死者之祭服
- 49) 『常變通攷』卷之七, 九, 「檀弓」復道也 北面求諸幽之義也…<註>…鬼神處幽暗北乃幽陰之方 故求諸鬼神之幽者 必向北也
- 50) 장철수, '유교 상례의 초혼(招魂)에 대하여: 유교(儒敎)의 영혼관(靈魂觀) 연구 서설', 『민족과 문화』(I, 민속·종교), 서울:정음사, 319(1992)
- 51) 『常變通攷』卷之七十, 「記」<疏>…左手執領還以字左手以領招之…招魂所以 求生左陽 陽主生故用左
- 52) 『常變通攷』卷之七十, 「士喪禮」<註>…三者 禮成於三…
- 53) 劉安(李錫浩 譯), 『淮南子』卷三 天文訓, 서울:乙酉文化社, 56 (1976)
- 54) 『常變通攷』卷之七十, 「喪大記」<疏>…上奠神在天下 奠神在地 中奠神在天地之間…
- 55) 『常變通攷』卷之七十二, 「書儀禮運曰死者北首謂葬時也 自沐浴至殯亦南首…'
- 56) 『四禮便覽』卷之三, 五, 「…去華飾」<註>錦繡紅紫金玉珠翠之類'
- 57) 『常變通攷』卷之七, 二十五-二十六, 「退溪曰 南斗司生 北斗司死故也」